

2023.11.26.(주일) 열왕기하6:1~7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김양재 목사님

1.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2.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재목을 가져다가 그 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3.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4.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6.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느니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7.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거주할 처소를 세워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백성을 굶기는 지도자가 정찰 위성을 발사 성공했다고 두 팔 들고 만세를 불렀어요. 북한을 생각하면 한 사람의 위정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게 되는데요. 평양은 한때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지요. 그때로부터 지금 100년이 조금 지난 지금은 ‘전 세계의 골칫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평양’ 하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고, ‘평양 대부흥 운동’ 하면은 ‘장대현 교회’인데요. 1894년에 세례교인 8명으로 시작된 장대현 교회는 해마다 부흥을 해서 예배당 건물을 매년 증축해야 했어요. 1900년에는 증축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아예 새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한 번에 천 명이 모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식민치하에는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짓는 데는 백두산 인근 압록강 유역에서 벤 소나무 2,800그루가 사용되었는데요. 당시 지역 개발권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가 깜짝 놀라서 항의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장대현 교회는 부흥을 거듭해서 1903년부터 1909년까지 남문밖교회, 창동교회, 산정현교회, 서문밖교회 등을 분립 개척했고요. 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친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이 시기 1907년에 이 교회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북한에 어서 자유가 회복되어 이런 부흥이 다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흥과 분립 개척이 나와요. 엘리사가 이끄는 선지 학교 이야기인데요. 이 선지 학교가 엄청나게 부흥해서 생도들이 거주할 이 새로운 처소를 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대구와 광주에 채플을 세우려고 하는 이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거주할 처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주할 처소를 세우려면 첫째,

1. 부흥으로 이어지는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1-2절)

1.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서 좁으니

처소가 좁대요. 근데 여기가 왜 부흥을 했을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한 과부 여인, 부자인 수넴 여인, 이방인 나아만 등 평신도와 이방인은 이 분별을 하고 순종을 했는데요. 엘리사의 수제자 게하시는 도리어 분별을 못했잖아요. 기회만 되면 스승의 지팡이로 권세를 휘두르고, 스승까지 팔아가며 이제 지어낸 거짓말로 큰돈을 탈취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보다 이 수제자가 가장 골칫덩이가 되고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하시가 얼마나 거룩해 보였으면 수제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힘드니까 다들 고정관념 없이 살려고 다들 오셨어요. 근데 이런 성도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역자들은 사역하려고 와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고자 하니 구속사가 도리어 들리지 않고, 평신도의 부흥에 비해 이 사역자들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제자가 게하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참다 참다 게하시의 탐심을 엘리사가 나병으로 치리를 했더니 도리어 이 공동체가 부흥을 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행간을 읽어야 돼요. 근데 게하시를 치리하지 않고 덮고 갔다면 그 당시는 지나갔겠지만 이 공동체의 부흥은 없고 잠시 후에 분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하는 이 공동체는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우리들교회도 치리를 하는 교회죠. 평신도, 사역자 모두 치리를 해왔어요. 물론 치리만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성찬, 치리가 골고루 있었죠. 바로 이것이 양육이에요. 양육이 제대로 되어 지니 부흥이 되어졌어요. 양육의 원칙은 철저히 말씀 적용이었죠. 결국 부흥을 내려 놓고 양육을 하니 부흥으로 이어지는 양육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1절에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은 이제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단순한 기숙사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우리가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이곳’은 4장 38절에도 나왔지만은 ‘엘리사 앞에 제자로 앉아 가르침을 받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 학교’예요.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죠.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죠. Teaching(티칭), Preaching(프리칭), Healing(힐링)이에요. 근데 잘 가르쳐야, 전파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지요. 우리들교회가 치유 집회 한 번도 안 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고 양육을 받으니 매주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이렇게 선지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뭐 합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배움의 기본이죠. 양육의 시작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양육이 이제 잘 되어가지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말할 때도 있더라고요.

왕사부 엘리야 선생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엘리사 선생님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걸 걱정의 질문이에요. “엘리사 선생님, 대책이 있으세요?” 이렇게.

또 엘리사에게 한 말이 있죠.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그 겹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넌 것을 본 직후에 2장에 나오죠.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걱정이 안도로 바뀐 감탄의 외침이에요.

또 제자들이 흉년에 굶다가 겨우 들호박국을 끓였는데 거기 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두려움에 또 외침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온 제자들의 말이 오늘 본문 1,2절인 거예요.

1절, 2절 다시 읽어요.

1.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2a.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재목을 가져다가 그 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처소가 좁으니 요단강 근처에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는 제안을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맨날 현실의 문제 앞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인데 선생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던 제자들이 많이 컸죠. 선생님께 자기들의 의견을 제안하니 말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제안을 했어요. 제자가 많아져서 선지 학교 건물이 좁아졌으니까 추가로 건물 하나를 세우자는 거예요. 신이 나서 당당하게 선생님 앞에 나와서 조르는 모습이 좀 귀엽지 않아요. 제자들이 엘리사를 회사 사장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충성해서 아무말도 못하면 양육에 실패한 것이예요. 사부님에게 질문하고, 나눔하며, 감탄하고, 두렵다고 외치기도 하고.. 드디어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 양육이 궤도에 진입한 거예요. 사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악한 왕 여호람 통치 아래에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상숭배로, 육적으로는 가뭄과 이웃 나라의 침략으로 살 길이 캄캄한 암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과 아합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아래서 홀로 앉아서 죽기를 바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선지자 선생님도, 제자도 아무도 없이 얼룩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제자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늘었습니다. 벤엘과 여리고 등지에 모여 선지학교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승계가 이루어져도 그 당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수였고 비주류였어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왕따였기 때문에 여전히 생존 자체가 문제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암흑기 엘리야도 끝까지 목숨 걸고 사역을 했고요. 후계자 엘리사도 스승 못지않게 전국을 누비며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손을 힘입어 메마른 개천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기름 한 그릇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넬 여인에게 아

들을 낳게 하고, 아들이 죽자 다시 살리고, 독이 든 죽을 해독하고, 적국 장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등.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근래에 한 설교여서 ‘네’가 많이 나오네요. ^^ 그 열매가 이제 게하시의 치리와 맞물려 여지껏 생존이 걱정이던 선지생도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도 그냥 부흥이 아니고요. 거주하는 처소로는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학생들이 몰려드는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신학교도 이미 두 개잖아요? 뱌엘과 여리고에 있어요. 그런데 두 곳 모두 엘리사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두 개의 신학교가 아니라, 1개 신학교에 두 채플이잖아요. 그죠? 이름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제자들이 자기를 '우리'라고 말하는 게 4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딱 “우리들신학교” 하면 딱 맞지 않아요? 또 신학교는 교회니까 “우리들교회”인 셈이에요. 우리들교회 뱌엘 채플과 여리고 채플. 우리들교회도 휘문이 차고 넘치니 어쩔 수 없이 판교채플을 세웠잖아요. 엘리사의 우리들신학교도 한 곳이 차면 다른 곳으로 보냈으면 되었을 텐데요. 두 곳 다 모두 차고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새로운 캠퍼스, 새로운 채플을 세우자고 제자들이 나서서 엘리사 선생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거주하는 곳이 차고 넘치는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누가 살아났어요? 선지 생도인 남편을 잃은 가난한 과부. 또 아들 낳지 못한 수넬 여인- 그러니까 남편과 안 통하는 사람, 남편이 죽은 사람, 나병 걸린 나아만 장군, 기근. 이런 여러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를 만나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아난 입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있는 선지 학교로 몰려들었을 것이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들을 섬길 일꾼도 많이 필요하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원리예요. 부흥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예요.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예요. 우리들교회도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하려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교회 부흥도 계획에 없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이혼하려는 한 사람 찾아가 이혼을 말리고, 죽겠다는 한 사람 쫓아가서 자살 말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살고 싶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저 그날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하루도 가정에 대한 얘기를 뵈 적이 없어요. 아십니까?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거의 진짜 안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오늘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오늘도 한 분 와서 앉아 계실 거예요. “오늘 할 거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갔는데 “목사님, 오늘 이혼하겠다는 사람 한 분 왔어요.” 결혼식에 맨날 ‘이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주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살고 싶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그렇게 하루하루 함께 살다 보니 20년이 그야말로 수일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성장해서 휘문 때문에 늘 장소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참

으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살아나는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의 기적, 아들 낳는 기적, 평안을 누리는 기적, 눈 뜨는 기적, 말씀대로 남는 기적, 나병이 고침을 받는 기적. 우리가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았잖아요. 이 기적 하나하나 나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와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여 적용했는지 자세하게 묵상했어요. 그런데 공통된 스토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도 키워가시고, 메세지도 키워가시고, 사람들도 키워가시고, 그들의 그런 성장을 통해 말씀에 담긴 메시지도 이렇게 키워가시는 것 아니었어요?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구원의 메시지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양육’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선지 학교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에요. 우리가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이곳! 우리가 당신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배우는 이곳!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이곳!!이에요. 기적이 부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양육이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시적이에요. 기적으로 일어난 부흥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한 양육은 말씀이 영원하므로 영원히 이어집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계승이 되면 교회가 분열이 안 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양육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의한 양육은 말씀이 영원하므로 영원히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직접 양육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리라고 믿어요. 하나님께 직접 양육을 받는 거는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 아니겠어요? 양육에서 이어진 부흥 또한 영원할 줄 믿습니다. 양육을 통해 이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거주할 처소를 세우게 됩니다.

■ 적용 질문이에요.

Q. 말씀으로 양육 받아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내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주할 처소를 세우려면 두 번째는

2. 내 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야 합니다. (2-5절)

2.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재목을 가져다가 그 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3.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4.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전국적인 가뭄이 이어졌기에 이렇게 선지학교 건축에 쓸 만한 나무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목재를 좀 구할 수 있는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베어 새롭게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고 하죠. 요단은 또 나아만이 병이 나았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영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아까 장대현교회도 압록강에서 소나무

베어다가 지었다고 했잖아요? 대구 채플은 낙동강, 광주 채플은 영산강에서 나무 조각 하나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채플을 세워야 할 정도로 부흥한 것을 누가 가장 기뻐했겠어요? 당연히 엘리사 아니겠습니까?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엘리사는 누구보다도 자세히 봤잖아요. 그 외로운 사역을 엘리사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가 차고도 넘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라”는 엘리사 선생님의 허락을 들은 그들은 자기들끼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종들과 함께 가소서**” 막 그냥 명령형을 이중으로 써서 매우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결단을 내리시고 종들과 함께 가소서!!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계획이 아무리 좋고 유익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정말 양육이 좀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사라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건 못한다.” 이 얘기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된다.”

아무튼 제자 한 명의 간청에 엘리사는 드디어 “**내가 가리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다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 함께 요단에 도착해서 나무들을 베기 시작해요. 아주 그냥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에 차서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사건이 딱 생겨요. 5절이에요.

5.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우짜꼬! 엘리사가 살던 때는 BC 9세기인데요. 이제 철기 시대 초기인 거예요. 구리로 된 청동기구들이 사용되던 시대인데요. 이스라엘 왕국 초창기인 BC 11세기에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뿐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선도했죠. 그래 가지고 블레셋의 수레가 유명하잖아요. 대장간을 통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 이세벨도 대장간을 통제하고 철제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쇠도끼는 최고급 전기톱일 뿐 만 아니라 빌려준 사람도 이거를 신앙고백으로 두고자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돌도끼로 한 그루를 겨우 벨 때 청동도끼로 두 그루를 벨 때 이 쇠도끼는 그냥 3~4개, 10개가 찼잘잘잘 베어져 나가니까 너무 신나서 베고 있다가 도끼머리가 자루에서 휙 빠져나간 거예요.

사실 도끼자루-머리-가 날아가는 일이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만 한 생도께서 점검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날아가서 함께 일하던 일하던 사람을 맞췄을 수도 있는데, 사람을 피해서 요단강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물이 꽤 차 있었나 봐요. 도끼머리를 찾는 게 불가능했어요. 값을 돈도 없고, 빌려준 사람에게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꼴이 되었고요. 문

자적으로도 선지자로서 사명을 접고, 이제 남의 집 노예가 될 처지가 되었어요. 이 선지 생도에게 쇠도끼가 떨어진 사건은 인생이 떨어진 사건이었어요. “아아~ 내 주여!” 신음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최고의 위기 상황이 왔어요. 지금 1단계도 못 마쳤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인 쇠도끼를 잃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내 힘을 신뢰하게 해주는 귀한 도구가 떨어져서 쓸 수 없게 됐다고요. 지금 선지 학교 캠퍼스 세우는 감격스러운 일을 위해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는데요. 손과 팔이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신나고 기쁘게 도끼질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휘둘렀으면 그렇게 날아갔겠어요.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일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쇠도끼 능력치의 100%~ 200%~를 발휘해서 작업이 빨리 진행되고, 건물이 설계보다 더 크고 튼튼하게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명분도 확실하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삼박자가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지금 무서운 위기가 왔어요. 이렇게 가장 의지 하던 대상이 떨어지고, 내 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전부 다 “내 인생 망했다~ 이제 끝이다~” 하지 않겠어요? 배우자의 신뢰가 떨어지는 사건을 만나면 “이혼해야 돼”, 내 인생의 기반이 떨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생기면, “죽어야 돼”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선택하게 되는 인생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실수가 지금 전체를 좌우했어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한 명의 믿음이 전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너무나 조심해야 되겠지만 - 나 한 사람의 말과 언어가- 하지만 그래도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하여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한 명이 또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한 명이 전체를 죽였어도 한 명이 살릴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할 처소를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기껏 짓고 나중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 힘을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 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그냥 기대도 하지 않게 만드세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 수 더 앞서 보시면서 진정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어제 초원님께서 새벽설교하실 때, 목장의 한 목원이신 변호사님과 아내와 자녀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만 이 아내가 교통사고를 내셨는데 그 당사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야말로 쇠도끼가 날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집이 갈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그냥 온 집안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아내를 위하고 사건 처리를 다 해주고, 딸도 엄마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그분이 모든 속도도 정확하게 다 지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후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실 것 같

은데,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주 전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각자 우리 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후한 선물이 되
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아셨죠? 공동체가 있고 말씀
이 있으면 돼요.

■ 적용 질문이에요.

Q. 내가 돈, 건강, 관계, 재능, 자리 등 이 쇠도끼처럼 의지하고 있는 사람(대상)은
누구(무엇)입니까?

Q. 그것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이 사랑으로 느껴집니까?

- 마지막 이혼 도장 찍기 직전 교회에 와서 말씀듣고 변화되어 내 힘이
빠져 지금은 10년째 모두 정신과 약을 드시며 목자 직분을 감당하시
며 거주할 처소가 되신 부모님. 그 사이에서 모범생으로 자라 지금은
유아부 교사가 된 청년의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물으며 가기 원한다
는 기도제목

유아부 교사예요.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된 아빠의 바람으로 1살이 되던 해부터 별
거를 하시고. 집에서 1분 거리의 집에서 별거하셨대요. 대부분의 어린 시절 기억이
아빠가 술에 취해 문 두들기고, 엄마 때리고, 집안 물건 부수고. 그리고 이제 6살
되던 해에 엄마와 아빠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고, 마지막 이혼 도장을 찍기 직전에
엄마는 CTS 방송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빠에게 “저기 저 교회에 우리들교회
한 번만 나가보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이혼하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차로 교회다 데려다주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하는 주차장 교인으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운동장에서 교회 문 앞으로, 교회 문 앞에서 예배당 맨 뒷자리로 자리를 옮기
게 되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물론 여전
히 (그게 굉장히 지금 오래된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2009년이니까. 그런데 그때부
터 여전히) 싸우고 때리고 난리치는 아빠래요. 근데 목장의 처방으로 정신과에 다니
시고 ADHD와 분노조절장애 진단받으시고 지금까지 10년째 약을 드시고, 엄마 역
시도 꾸준히 병원을 다니시며 우울증, 강박,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러니까 싸우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두분 다 목자로 섬기시고 계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
니까, 자기는 늘 싸우는 부모 밑에서 갈등만 일어나면 자기가 막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어렸을 때 그 나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
에서는 모범생인데 학교 밖에 나가면 잘 나가는 무리에 속해 있는 일원으로 술 담
배를 일삼고 그걸로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막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춘기 시절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네. 서울대를 갔다는 거예요. 엄
마, 아버지는 둘이서 싸움질만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그렇게 서울대를 가니까 그냥 이 그냥 믿음과 세상
적인 것에 교만이 그냥 하늘을 치솟아가지고.. 그때는 막 엄마, 아버지 때문에 막
기도했는데, 교회 수련회 갈 때마다 ‘아, 하나님 이번엔 일단 누워서 자고 진짜 다

음변에 만날게요.’ 그래서 갈 때마다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걸 알지만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곳곳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되었다 함이 진짜 없네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유아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진로에 대해 매일 기도하고, 제가 가진 재능이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이 목사님, 유아부 선생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내는 게 어디예요? 내 힘이 떨어져야 되는데.. 보세요. 오늘이 집이 이렇게 목장에서 처방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이혼했어야 될 집이잖아요. 우리들교회는 그래서 전국 곳곳에 이 도피성 교회가 정말 있어야 되고. 이제 같이 우리도 이렇게 동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100% 이혼했을 집 아니예요? 마지막 도장 찍기 전에 왔다는데..

자, 거주할 처소를 세우려면 셋째는 그래서

3. 사명의 십자가를 손 내밀어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6-7절)

6.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느니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는 그 쇠도끼가 어디 빠졌냐고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 그 상황! 그 환경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요구예요.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와서 날마다 이거 보이잖아요.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지. 이제 망했다며 환경에서 벗어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환경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엄마, 아빠가 약을 10년째 먹는거잖아요. 그거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나는 안 아파~ 당신이 아파~” 이랬는데 둘이 서로 다 약을 먹으니까 “우리는 친구아이가~ 약 친구~”^^ 이러면서 기쁘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힘이 딱 빠지니까 약을 먹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약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가 쇠도끼가 떨어진 장소를 목장에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초원에 와서 정말 변호사고 남들이 보기에 다 부러워하지만 그걸 내보였잖아요. 내보이니까 이게 해석이 돼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장에 와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쇠도끼가 떨어진 장소를 보여주니까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요. 2장에도 물근원에 소금을 던져 나쁜 물을 고쳤는데, 또 솔에도 가루를 던져 죽음에 독이 들어간 죽을 해독한 해독 공동체 얘기 들었죠?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깊이 가라앉은 쇠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중세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아무리 무거운 쇠도끼가 없어지고 가라앉았어도 나뭇가지를 딱 놓으니까 그게 떠올랐어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대단한 기적을 행했는데 여러분 사흘 길을 걷고 물이 써서 못 마시니까 백성이 금세 원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백성들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고 했어요. 오래된 나무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던지면 쓴물도 달아지고 쇠도끼도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문밖 출입을 못할 때 나는 날마다 “나가지도 못하고 돈도 안 주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만 부르짖다가 제가 그냥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럼 내 주위의 나뭇가지를 넣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아! 병원에서 전도를 하자!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산모들에게는 병실에 들어가서 간증을 하며 전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 당시 딸 낳은 산모들은 막 슬퍼하면서 “아이고~~” 곡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딸 낳다고. 그냥 딸 낳자마자 시어머니 다 나가버리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병실에 가면 산모가 밥도 안 먹어요. 제가 들어가서 위로하고, “내가 딸 부잣집 막내딸이다!” 하면서 이제 간증과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 잘 가고, 피아노 치고 걸으로 보기에 성공했을 때는 지옥을 살다가 병원에서 전도하고 양육을 하니까 천국을 살더라고요!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결혼을 지키는 비결 인지를 몰라요! 그게 내 만족 때문이 아니에요. 결혼을 지키는 것이 내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비결이더라고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남의 새끼 가르치면 내 새끼 하나님도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속사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반드시 그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절에

7.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쇠도끼가 떠오르니까 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지 생도가 물에 뜬 이 싹덩어리를 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냇이 나갔을 그에게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들어올리라!” 죄와 사망의 맨 옛사람을 떨어뜨려 버리고 주님이 살려주신 새사람을 들어올려야 하는데요.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니 이제 그거 생각하며 아쉬워하지 말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내 뒤통에 태인 십자가를 들어올려서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라!” 그러니까 “집으니라” 이걸 ‘잡았다, 뺐었다, 가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들어올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명의 십자가를 맡기실 때 “나 못해요. 들어올릴 수 없어요!” 주저앉지 말고 그저 손을 내밀어 잡기만 하라는 거예요. 들어올릴 힘은 없어도 손은 내밀 수 있잖아요! 손 내밀어 잡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떨어뜨린 것, 내가 내 힘 믿고 덤비다가 실패한 것, 교만하게 나대다가 넘어진 것..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다시 떠오르면 다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래도 도망가려는 것은 여전히 내 힘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의지하던 쇠도끼가 완전히 떨어졌으면 도망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무슨 재혼으로~ 외국으로~ 어디로~ 이민으로~ 어디로~ 환경으로 자꾸 도망간대.. ★그런데 피하고 싶은 사명 다시 보여주면서 “집으라! 들어올리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잡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손 내밀어 잡는 게 무엇이에요? 순종이죠. 사명을 맡기실 때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직분을 줘도 맨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종하며 받는 것이 그냥 손 내밀어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 높이 들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 **심방 내내 우리들교회와 목장 출석을 거부하다 아들의 기도제목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아내가 3가지 조건을 지키면 부부목장에 나가겠다고 손 내밀어 도끼를 잡은 남편.**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아이 집을 이제 심방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우리들교회가 어떤 틀에 가두는 것 같아 힘들다고 하시면서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무기력과 우울증에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또 전혀 지키지 못하고 계셨고, 또 아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들교회가 더 싫겠죠. 그런데도 이 아내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은 남편이 부부 목장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2시간을 심방을 했는데 계속 남편이 우리들교회 싫다고~ 힘들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과정에서 6학년 아들이 “아빠가 부부목장 나가서 자신이 부부목장 간식 먹는 것이 소원이라”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많이 생각했는지 아내에게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조건부로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 절대 부부 목장에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내 집사님이 적용으로 아침 밥, 빨래 등을 지금 잘하며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너무 이빠요. 진짜 이게 보고 배우는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교회는 있어야 되는 명분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교회 자체의 생존이나 부흥이 목적이 아니었고, 오직 「말씀 묵상, 가정 중수」 운동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적 뜻이 있으셔서 큰 부흥을 주셨어요. 분립 개척을 해도 벌써 여러 차례 하고도 남을 부흥이에요. 하지만 말씀 묵상 운동이 행어나 또 오해와 방해를 받을까 봐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교회를 세우거나 분립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교회는 판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다 흩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옛날부터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부흥회나 행사는 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오직 이 큐티 무브먼트가 널리 전해져 그 한 사람 살리는 물결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THINK 목회 세미나'를 10년 동안 열며 목회자 부흥회를 1년에 두 번씩 했어요. 사실 개교회가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교회 부흥회는 한 번도 안 하고. 매번 섬길 때마다 말씀이 들려 반응하는 그 한 목회자, 그 한 교회가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아낌없이 다 나눠주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곳곳에서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씀 묵상의 동역자가 되신 여러 목사님들을 우리가 강단에서 계속 보고 있죠? 정말 이거는 다음 세대의 대안이 될 줄 믿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만 하기에는 사실 너무 더디네요. 반면 시대는 너무도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요새 판사들의 이혼 판결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나온 지 한참 되었고요. 가정을 해체하고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소용돌이가 너무도 급속도로 켜지고 있습니다. 세속사적인 가치관에 태풍과 해일이 몰아닥쳐서 많은 영혼들과 많은 가정들을 흘러 떠내려가게 하고 있어요. 출산율이 0.7이예요. 집집마다 형제자매 중에 이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구속사 말씀의 방파제를 목회자 세미나만 가지고 세우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라가 없어지면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흥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을 만큼 참았죠.

20년 동안 그래서 가장 멀리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이곳까지 매주 오가며 예배 처소에 거주하신 수백 분의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기 교회 건물이 좋다고 왔겠습니까? 냉난방도 안 되는 이곳에 다 살고자 오셨습니까. 그냥 피투성이라도 살려고 오셨어요. 그분들에게 목회자 한 분 파송하면 교회가 되는데 그곳에 개척하지 않기가 더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들교회가 기초도 안 세워졌는데 처음부터 개척했다면 그냥 우리 교회 부흥으로 끝났을 거예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이분들에게 나뭇가지를 던져 이제 떨어진 것이 다시 떠오르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구와 광주에 제일 먼저 세우게 된 것은 제가 날마다 지역감정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잖아요. 가장 어려운 영호남 지역감정의 본산지들이예요.^^ 그곳은 유입 인구가 없어서 너무나 배타적이고, 목회의 불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QTM이 같이 가서 그곳에 목장이 세워져서 영호남의 양육 훈련을 담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또한 그곳은 지교회가 되며, 또한 분립 개척도 병행할 예정이에요. 구속사의 목상 운동, 가정중수 운동이 들쭉처럼 일어나야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 목장과 가정중수의 사명을 집으라고 하세요.** 너무 무거운 십자가죠. 세태를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이에요. 그러나 또한 너무 귀한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거기 누가 가서 개척을 하겠어요? 그렇게 배타적인 도시에. 너무 유교적이고, 상처가 많고. 저와 여러분을..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오늘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하세요! **이 순종의 믿음으로 대구와 광주를 향해 이제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구원 때문에 고민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망설이던 개척을 저도 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지는 사명을 높이 들어올리셔서 한 영혼 한 가정 구원하시는 기적을 대구와 광주에서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대구는 송구영신 예배를 첫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도 동시에 매입을 했지만 리모델링으로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 광주는 대구부터 하냐고 또 저한테 불평하실까 봐.)

다 여러분들이 멀리서 살려고 온 것뿐인데 ‘얼마나 힘들면 그 먼 곳에서 20년을 오셨을까’ 생각하며 그분들은 다 쇠도끼 잃어버렸다고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20년을 사모하고 오셔도 건축 헌금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 들교회는 여전한 방식의 일반재정으로 가장 힘든 지역에 아주 큰 재정으로 나뉘가지를 베풀어서 던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 살리려고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의 불모지에서 힘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구속사 큐티 목회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지금까지 세대는 이 큐티 목회 구속사가 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 요새 젊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지금 부흥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 적용 질문이에요.

Q. 주님이 내게 집으라고 명령하시는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Q.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구, 광주 본인들은 돈도 없고 고난만 많고.. 아무리 사모해도 널 돈도 없고 누가 건물 하나 탁 내고 “여기서 교회 하십시다.” 그러면 그거야 뭐 그분들이 개척하니까 우리가 뭐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날마다 “교회 안 세워주냐? 교회 안 세워주냐?” 이 이 제자들처럼 세우려고 했더니 쇠도끼부터 잃어버렸어. 할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 선물이잖아요. 눈을 뜨고 났더니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들교회가 이렇게 손해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손해를 보면 결국 가정정수 말씀 묵상 운동이 일어날 줄 믿어요! 우리들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박수 한번 쳐요. 큐티인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이게 누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책 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생율이 0.7에서 0.6으로 가면 나라가 없으면 이제 명분은 뭐하고 다 뭐 하겠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치를 20년이나 보다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얼마나 개척 안 하기가 힘들었는지 오늘 아셨죠? 우리들교회를 위해서라면 옛날에 했어요. 이거를 모든 분들에게 설명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먼 지역에 우리가 처음으로 나뉘가지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십자가. 그 희생이 그곳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어요. 거주할 처소를 세우려면 첫째 부흥으로 이어지는 양육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교육(Teaching, 티칭)', '전파(Preaching, 프리칭)', '치유(Healing, 힐링)' 이.. 잘 가르쳐야 전도를 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치유 집회에 간다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근데 20년 동안 보니까 우리들교회가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 데 진짜 성경만 읽혔더니 이 프리칭,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전파와 이렇게 치유가 일

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십자가를 손 내밀어 잡으면 됩니다. ‘우리예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 우리예겐 소원이 하나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행한 우리마음
희생과 포기과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

기도제목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거주할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대구와 광주에 세워지는 채플도 거주할 처소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 양육받게 해달라고! 양육 제대로 받아서 부흥하는 나와 가정과 회사와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내 힘에 대한 신뢰를 좀 내려놓게 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 베어서 이 십자가를 길로 놓게 해달라고. 일상생활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나뭇가지를 베야되는 거예요. 오래된 거 아니고. 오늘 일상생활에서 내 나뭇가지를 베어서 십자가를 길로 놓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 대구, 광주 채플이 사람 살리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영호남 지역의 지역감정이 해결되는 처소가 되도록. 영호남 뿐 만이 아니라 호남에는 남북 갈등도 아주 심하다 그래요. 전주, 광주의 갈등도 그렇게 심하다고 한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정말 양육이 이루어질 때 이걸 좀 보여주는 모델이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 불모지에 전도와 양육이 제대로 되어서 치유가 되고 가정 부흥이 살아나도록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상 공동체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게하시를 치리하니 공동체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참으로 얼마나 감격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명분도 있고, 열심도 있었는데 이렇게 쇠도끼를 잃어버리는 알 수 없는 위기가 또 왔습니다. 어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 일이 왔어요. 근데 “내 주여, 어찌합니까?” 부르짖는 생도를 보며 우리 모두도 날마다 목장에서 예배드리고 가지만 오늘 쇠도끼가 날아간 그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어찌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주여, 해석을 잘하면 해결이 됨에도 오늘 또 사건이 생겨서 힘이 듭니다. 주님, 이럴 때 거주할 처소가 되는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길로 놓는 이 나뭇가지 베는 적용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물어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린 이 대구와 광주 채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도와 양육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시작이 됩니다. 주여, 많은 가정이 중수되고 양육이 되어지는 묵상 운동의 본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어떤 사탄도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주할 처소를 알려주시니 감사하여 나뭇가지를 베어 십자가로 또 길로 놓는 적용을 알려주시니 감사하여 신앙고백으로 드린 헌금을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손으로 내밀어 잡아서 사업과 회사와 공부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약]2023.11.26.(주일) 열왕기하6:1~7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평양은 한때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지만 100년이 조금 지난 지금은 ‘전 세계의 골칫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는 1894년 세례교인 8명으로 시작해 부흥을 거듭했고, 1903년부터 1909년까지 남문밖교회, 창동교회, 산정현교회, 서문밖교회 등을 분립 개척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 1907년 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북한에 어서 자유가 회복되어 이런 부흥이 다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흥과 분립 개척이 나와요. 엘리사가 이끄는 선지 학교 이야기인데요. 이 선지 학교가 엄청나게 부흥해서 생도들이 거주할 이 새로운 처소를 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대구와 광주에 채플을 세우려고 하는 이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거주할 처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주할 처소를 세우려면,

1. 부흥으로 이어지는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1-2절)

Q. 말씀으로 양육받아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내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내 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야 합니다. (2-5절)

Q. 내가 돈, 건강, 관계, 재능, 자리 등 이 쇠도끼처럼 의지하고 있는 사람(대상)은 누구(무엇)입니까?

Q. 그것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이 사랑으로 느껴집니까?

■ 마지막 이혼 도장 찍기 직전 교회에 와서 말씀듣고 변화되어 내 힘이 빠져 지금은 10년째 모두 정신과 약을 드시며 목자 직분을 감당하시며 거주할 처소가 되신 부모님. 그 사이에서 모범생으로 자라 지금은 유아부 교사가 된 청년의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물으려 하기 원한다는 기도제목.

3. 사명의 십자가를 손 내밀어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6-7절)

■ 심방 내내 우리들교회와 목장 출석을 거부하다가 아들의 기도제목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아내가 3가지 조건을 지키면 부부목장에 나가겠다고 손 내밀어 도끼를 집은 남편.

Q. 주님이 내게 집으라고 명령하시는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Q.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잡고 있습니까?